

# 고통의 기억서 자유로워지는 방법 있을까?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김혜숙 작가 첫 소설집 출간

“긴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느낌에요. 설렘보다는 편안함이 먼저 든다고 할까요. 아마도 작가가 돼 책을 내겠다는 생각을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러 꿈을 이루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등단 3년 만에 첫 소설집을 펴낸 김혜숙 작가. 김 작가는 2016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누룩을 깎다’로 등단했다. ‘학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라는 말에서 글 쓰는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최근에 기자는 ‘따끈따끈한’ 첫 소설집 ‘유리병이 그려진 4번 골목’ (문학들)을 발간한 김 작가와 인터뷰를 했다. 바리던 창작집을 발간했으니 기쁜 것도 같지만 예상과 달리 작가는 무뎠답해 보였다. 저편의 보여지는 모습과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보려는 이편의 시각이 어긋나는 순간이었다. 아마도 첫 작품집을 펴냈다는 기쁨보다 세상에 내놓고 보니 뭔가 아쉬운 면이 있나 보다 싶었다.

김 작가는 “어릴 적 산골에서 자랐는데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 마을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 이야기를 지어 발표하는 놀이를 했다”고 한다. ‘이야기를 짓다’라는 말에서 어렵것이 ‘서사’의 감흥을 알아버린 어린이의 순진한 표정이 떠올랐다.

“작품 속 주인공 자유롭지 못해 인물들 매개로 ‘우리’ 모습 재현 내게 소설은 위로·변명 같은 것”

“가정형편 때문에 친구들이 대학 갈 때 취업을 했습니다. 뒤늦게 대학에 들어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죠. 그러다 체계적으로 소설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수년 전 문순태 선생님이 계시는 담양 생오지에 찾아갔어요.”

김 작가는 그렇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글을 쓰는 ‘주경야작’ (晝耕夜作)을 거쳐 마침내 2016년 신춘문예에 등단한다. 그 때문이었을까. 이번 소설의 대부분의 주제는 ‘자유’다. “한 번도 편하게 학교를 다니 적도 글을 써 본적도 없다”고 한 데서 보듯 내면에는 끊임없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듯 했다.

“이번 소설의 주제는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자유롭지



못하죠.”

특히 표제작 ‘유리병이 그려진 4번 골목’의 주인공들은 고통스러운 기억에 얽매어 있다. 작가는 이 인물들을 매개로 ‘우리’의 모습을 재현했다. 지금 우리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라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유리병이 그려진 4번 골목’의 이야기는 주인공이 남자 친구 아버지의 자살을 목격한 후부터 전개된다. 이후 눈덩이가 파랗고 두툼한 허를 빼내 유령과 마주한다. 그 유령은 주인공의 삶을 진장으로 만든다. 그녀는 유령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계획을 세

우고 남자 유령의 아들 현수를 만난다.

등단작 ‘누룩을 깎다’에서도 주인공 가족을 괴롭히는 과거의 실체가 나온다. “누룩은 모든 술의 근원이다. 누룩처럼 너도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깎을 수만 있다면...” 이처럼 과거에 얽매인 인물들의 이야기는 다른 작품 ‘혹’, ‘사소한 일거리’에서도 변주된다.

김 작가는 현재 독서논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 소설을 쓰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나름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 “단편소설 80매를 녹음하면 30여분 걸리는데, 장성에서 광주 점점으로 출퇴근하며 떠오르는 이야기를 소리 내 읽는다”는 것이다. 소설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거고 고민하다 고안한 방법이다.

앞으로는 장편에 도전할 생각이다. 물론 틈틈이 단편도 써서 늦지 않게 두 번째 창작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작품 속 인물들이 자유롭지 못하면 저 또한 자유롭지 못하겠어요. 내 소설 속 주인공들은 삶의 부조리를 견뎌 못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내게 소설은 나를 포함한 그들을 위한 위로와 변명 같은 것입니다.”

한편 김 작가는 광주대 문예창작과 석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오는 19일 오후 2시 담양가사문학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문의 010-4055-793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조선 마지막 공주 덕은공주 친필 한글자료 美서 환수

조선의 마지막 공주이자 순조의 셋째 딸인 덕은공주의 친필 한글 자료가 미국에서 환수됐다.

문화재청은 덕은공주가 쓴 ‘자경전기’ (慈慶紀)와 규훈(閔訓·사진)을 비롯한 ‘덕은공주 집안의 한글자료’ 68점을 미국에서 매입해 국내로 들여왔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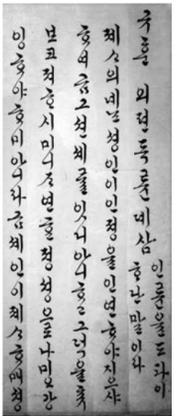
이번에 환수된 한글 책과 편지, 서예 작품 등은 조선왕실의 한글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자경전기’와 ‘규훈’은 본래 모두 한문으로 쓰여져 있었지만 덕은공주가 한글로 번역해 작성했다. 전자는 1808년 순조가 정조비 효의왕후의 명에 따라 창경궁 자경전에 대해 쓴 책이며, 후자는 여성들이 지켜야 할 덕목과 예절에 관한 책이다.

1822년(순조 22년)에 태어난 덕은공주는 성은 이, 본관은 전주다. 문조(효명세자)와 명은공주, 복은공주 등의 친동

생이며 어머니인 순원왕후는 안동 김씨 가문 김조순의 딸이다. 이번엔 환수된 68점의 한글 자료는 조선왕실 여성들이 생활 속에서 한글이 의사소통의 중요수단이었던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왕실에서 사용했던 아름다운 한글 궁체의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높다.

문화재청이 미국에서 매입해 국내로 들여왔다고 밝혔다. 이번엔 환수된 한글 책과 편지, 서예 작품 등은 조선왕실의 한글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자경전기’와 ‘규훈’은 본래 모두 한문으로 쓰여져 있었지만 덕은공주가 한글로 번역해 작성했다. 전자는 1808년 순조가 정조비 효의왕후의 명에 따라 창경궁 자경전에 대해 쓴 책이며, 후자는 여성들이 지켜야 할 덕목과 예절에 관한 책이다. 1822년(순조 22년)에 태어난 덕은공주는 성은 이, 본관은 전주다. 문조(효명세자)와 명은공주, 복은공주 등의 친동생이며 어머니인 순원왕후는 안동 김씨 가문 김조순의 딸이다. 이번엔 환수된 68점의 한글 자료는 조선왕실 여성들이 생활 속에서 한글이 의사소통의 중요수단이었던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왕실에서 사용했던 아름다운 한글 궁체의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높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토요상설공연 참여 작품 28일까지 공모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2019 토요상설공연’ 상반기 무대에 참여할 공연 작품 17개를 오는 28일까지 공모한다.

지난 2012년부터 8년째 운영되고 있는 토요상설공연에는 성악·기악·타악·전통무용·연희·창작·퓨전 등 다양한 형식의 공연과 국가·사·도 무형문화재 초청공연이 열리고 있다. ‘흥겨워라’를 주제로 열리는 공연은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 내 서석당 또는 너털마당에서 진행된다.

출연자에게는 1회 출연료 120만원을 지원하며 공연장·진행자·보조인력과 무대 장비 등을 제공한다. 전통공연예술 분야 전공자를 포함한 단체(개인)로 공연 역량을 갖춘 예술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를 광주문화재단(gjcf.or.kr)이나 전통문화관(gtcc.or.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전자우편(leerira777@naver.com)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한편 토요상설공연은 올해 공모공연 및 기획공연 총 38회를 계획하고 있다. 공모공연은 상반기 17회(2월-7월), 하반기 8회(9월-11월)로 나눠 공개모집 후 작품심의위원회에서 작품을 선정한다. 기획공연은 연간 추진방향을 작품심의위원회에 제시한 후, 위임 또는 추천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반영해 13회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062-232-1595.

다. 단 동일·유사 사업으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나 출연진 전체의 70%가 아마추어 동아리·수강생으로 구성된 단체(개인) 등은 지원할 수 없다.

신청서를 광주문화재단(gjcf.or.kr)이나 전통문화관(gtcc.or.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전자우편(leerira777@naver.com)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한편 토요상설공연은 올해 공모공연 및 기획공연 총 38회를 계획하고 있다. 공모공연은 상반기 17회(2월-7월), 하반기 8회(9월-11월)로 나눠 공개모집 후 작품심의위원회에서 작품을 선정한다. 기획공연은 연간 추진방향을 작품심의위원회에 제시한 후, 위임 또는 추천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반영해 13회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062-232-1595.

문의 062-232-1595.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5월 아픔 간직한 역사 현장...원형 복원돼야”

문예지 ‘문학들’ 옛 전남도청 복원 경위와 의미 다뤄 눈길

“옛 전남도청은 5·18 민주화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장소다. 당시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공간으로 찾아가서 사건을 바라볼 때 가장 정확한 역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옛 전남도청을 원형대로 복원 하자는 것이다. 그 어떤 기념물과 상징물 보다는 원형이 훨씬 더 과거를 기억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한다. 특정 건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특정 기념물이나 조형물 으로는 환경의 정신을 담아낼 수도 없고 대표할 수도 없다.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기억과 기념은, 사실적인 역사현장에서 출발한다. 원형이 제대로 있어야 진실도 규명되고, 왜곡과 폄훼도 막을 수 있으며 정신도 온전히 계승될 수 있다.”(홍성철)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전남도청복원 전담팀이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사·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종합문예지 ‘문학들’(겨울호·54)이 옛 전남도청 훼손과 복원을 둘러싼 경위와 의미, 향후 과제를 다뤄 눈길을 끈다.

‘뉴광주 리뷰’에 실린 두 편의 글은 각각

내부자적 시선과 외부자적 시선으로 5·18의 현재와 광주시민의 현주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홍성철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도 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옛 전남도청 복원과 과제’에서 보존과 복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절박했는지를 말한다. 홍 위원장은 2008년 보존을 위한 대책위가 오월단체와 진보연대, 문화유산연대의 등에 국한되었다면 현재의 복원을 위한 대책위는 관과 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돼 대규모로 결성됐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는 “대책위는 자체의 논의와 토론,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옛 전남도청이 예술기관이나 박물관이 아닌, 1980년 5월의 아픔과 의미를 간직한 역사적 장소가 되어야 하며 많은 시민들과 청소년이 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그날의 의미를 오늘에 어떻게 계승하고 실천할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더 필



옛 전남도청 본관과 별관.

(광주일보 자료 사진)

요하다. 공간의 원형 복원이 우선이고 활용방안과 콘텐츠는 복원된 원형에 기초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와세다대학 대학원 정치연구과 박사후 과정에 재학 중인 사토 유키에는 ‘집합적 기억과 공간, 그리고 노래하는 ‘당사자’에서 ‘당사자’성에 대해 분석한다.

사토 유키에는 “5·18의 정신계승을 목표로 세운 지금, 5·18이라는 집합적 기억을 배분 받아갈 사람들, 혹은 지금까지 ‘당사자’가 아니라고 여겨져 온 사람들도, 앞으로 당사자로 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그 정신에 호응하며 거기에 동일화하기를 바라는 대한민국 이외의 사람들까지 ‘당사자’의 일부로 떠안아 줄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해 가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청복원 전담팀은 1980년 전후 옛 전남도청과 경찰청 등 6개 건물의 내·외부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 내부 구조, 내·외부 공간별 환경 상황, 탄흔 자국 등에 대한 자료나 증언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2019 미술 전시해설사 육성 지원’ 사업 공모

31일까지 문화예술회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는 ‘2019 미술 전시해설사 육성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작가가 창작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고, 전시해설을 통한 관람객의 미술 전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미술관, 문예회관, 비영리 전시공간, 비엔날레재단 등이며 전시해설사는 미술전공자, 미술 작가, 미술

전시해설사 경력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기관에는 전시해설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며, 해설사에게는 사전 교육·심화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마감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mhlee@kocaca.or.kr)을 통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해당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문예 홈페이지(www.kocac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3019-584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홍문화 | 다영 | 최여진 | 김지영 | 김희정

무작정 풍덩하라

# 워터걸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20분 방송

CHANNEL